

#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 불러왔다!

산자부, 2002년 3월 대비 32.9% 늘어 ... 에너지원 수입 57.7% 증가

2003년 3월 수입이 15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32.9%, 전월대비로는 15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3년 3월 국내 수입은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0%대의 증가율이 지속되면서 2002년 12월 이후 3개월만에 역대 최고치 144억5000만달러를 경신한 159억3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. 1일 평균 수입도 6억7000만달러로 최고실적을 기록했다.

그러나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.5% 늘어난 155억7200만달러, 무역수지는 3억6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1-3월 적자폭은 8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.

3월 수입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, 석유제품, LNG 등 주요 에너지원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3억달러(57.7%) 증가했기 때문이다. 특히, 원유는 도입단가가 2월에 이어 30달러를 넘어서고 도입물량도 증가했다.

## 에너지원 수입동향

(단위: 100만달러, %)

구 분	2002.3	2003.2	2003.3	증감률	
				전년동월대비	전월대비
원 유	1,474	1,893	2,449	975(66.1)	556(29.4)
석유제품	374	589	613	239(63.9)	24(4.1)
LNG	402	461	486	84(20.9)	25(5.4)
합 계	2,250	2,943	3,548	1,298(57.7)	605(20.6)

3월 원유 도입액은 2002년 3월보다 9억7500만달러(66.1%)나 늘어났으며, 석유제품과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액도 각각 2억3900만달러(63.9%), 8400만달러(20.9%) 증가했다. 에너지 수입액 증가액은 12억98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액의 3.6배에 달했다.

더구나 전황이 악화돼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대로 치솟으면 무역적자 행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4/04>